

특집

동아시아의 畫題

동아시아 畫題 아카이브의 구축과 활용

서운경

I. 머리말

徐潤慶

한국미술연구소 책임연구원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역사학 박사
고고미술사

‘畫題(*hwaje*)’란, 그림의 주제나 제재 또는 그림의 題名을 말한다. 작가가 창작 의도와 주제 및 내용에 의거하여 짓거나, 동시대의 감평자가 제발문이나 제화시 등을 통해 붙인 것으로, 중국어로 *huati*, 일본어로 *gadai*, 영어로는 *title* 혹은 *subject matter*를 의미한다. 그림의 제목으로 등장한 화제는 시간을 지나며 반복적으로 나타나 유형화, 보편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특정한 도상들을 시각화하는 주제로 정착된다. 이는 이미지를 매개하는 촉매적 언어이며, 특히 문학과 회화 및 종교와 철학적인 사유의 영역을 아우르는 학제성을 지닌 것으로, 작품의 창작과 享受 활동의 이해를 넘어, 당대 문화예술계의 미의식과 심상 및 문예취향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실증적인 1차 자료로서 의의를 지닌다. 이렇듯 화제는 동아시아의 고유한 예술장르로 중세적 감상용 그림이 전개되면서, 그림의 畫意, 意境과 운치 등을 보완하고 화면의 미적 효과를 발흥시키며 크게 발전했다.

본고는 동아시아 회화에서 이러한 ‘화제’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 이 글은 『미술사논단』45에 투고한 후, 2017년 11월 29일 스위스 취리히 대학 동아시아 미술사 연구의 초청강연에서 발표하고(*East Asian Paintings and Their Subjects*, The Section for East Asian Art History, University of Zurich), 이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필자의 최근 논저: 「중국 北朝 시기 家屋形 石葬具의 建築意匠 연구」, 『미술사논단』44, 2017. 6; 「중국 北朝 시기 儀仗出行의 재현과 祭儀」, 『미술사논단』39, 2014. 12; 「북위 平城期 沙嶺벽화고분의 연구」, 『미술사학연구』267, 2010. 9.



중심으로 진행하는 토대연구 《동아시아 畫題의 집성 및 해제와 종합 DB 구축》의 현황을 짚어보는 글이다. 본 연구는 2015년 이래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홍선표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총 15여 명의 연구진이 참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사용된 화제의 개념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구체적인 과정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회화에서, '화제'는 작가가 자신의 창작목적과 의도를 반영시킨 가장 기본적인 회화언어이다. 작가가 그림 위에 직접 화제를 쓴 대표적인 사례는 趙孟頫(1254~1322)가 그린 《鵲華秋色圖》이다.¹ 친구周密을 위해 그의 선조의 땅 산둥(山東) 齊南의 경치를 그린 것이다. 조맹부는 그곳에 갈 수 없었던 친구를 위해 그곳의 풍경, 鵲山과 華山을 강남의 경관으로 그렸다. 화면 위에는 산수 형상뿐 아니라, 조맹부가 쓴 화찬과 후대의 수장가가 찍은 인장들과 제시가 있다. 여기서 조맹부는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경위를 말하고, 직접 '鵲華秋色'이라고 화제를 명명하고 있다.¹ 한편 작품의 동시대 또는 후대의 감평자에 의해서 새로운 화제가 추가되기도 한다. 王維(692/699~759/761)의 작품으로 알려진 《江山雪霽圖》는 명청대 신사, 상인층 수장가 사이에서 최고의 명품으로 주목받은, 그래서 董其昌의 남종화론 성립에 양식적 근거를 제공한 작품으로,² 歐陽脩, 蘇軾 같은 북송대 문인의 왕유 인식이 반영된 명대 화단의 산물이다. 북송 이후

1
趙孟頫
《鵲華秋色圖》
1295년, 견본채색
28.4×90.2cm
臺北國立故宮博物院

1 “公謹의 아버지는 齊人이다. 나는 齊州의 通守로 있다가 그만두고 돌아왔다. 공근에게 齊의 산천에 대하여 말하는데 유독 華不注山이 제일 유명하여 춘추좌전에 관건구절이 나온다. 그 형상이 높고 가파르고, 홀로 우뚝 솟아, 죽히 신비한 바가 있었다. 이에 이 그림을 그리니 그 동쪽은 곧 鵲山이라, 명명하기를 鵲華秋色이라 하였다. 元貞元年(1294) 12월에 吳興의 조맹부가 그린다. 公謹父齊人也 余通守齊州 罷官來歸 爲公謹說齊之山川 獨華不注最知名 見於左氏 而其狀又峻峭特立 有足奇者 乃爲作此圖 其東則鵲山也 命之曰 鵲華秋色云 元貞元年十有二月 吳興趙孟頫製”.

2 王維의 《江山雪霽圖》는 본 책의 p.225, 도5 참고.

원·명·청대 문인의 왕유 인식은 雪中探梅/雪中驥驢, 袁安臥雪/雪中芭蕉, 子猷訪戴 같은 故事가 그려지고, 飛雪千山圖와 浦漁圖 같은 古畫와 倣作이 출현하며, 渴筆線描의 雪景 표현이 부상하는 등 화단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³ 이러한 사례를 보듯이, 동아시아의 화제에는 문화, 문학, 역사, 철학, 종교, 사상 등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려면 폭넓고 깊이 있는 동양의 인문학적 이해가 필요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다른 학문체계까지 종종 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미술사, 특히 회화사를 연구하는 학자에게 ‘화제’는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필수적인 회화요소인 셈이다.

본 연구는 이 ‘화제’를 키워드 삼아, 동아시아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회화양상을 살펴보고자 기획된 것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역사적·문화적으로 밀접한 상호교류와 영향관계를 가져 왔으며, 문예와 심미의식을 공유하는 동시에 각국 회화의 고유성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때문에 동아시아 각국의 현존하는 회화작품과 문헌자료를 통합적으로 집성한다면, 그래서 동아시아의 화제를 중심으로 한 회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면, 동아시아 회화 연구에 기초 토대를 마련할 것이며, 더 나아가 동아시아 각국 회화의 공통성과 고유성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작품 및 작가 연구에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II. 화제 아카이브의 기본방향 및 내용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범위와 대상 및 연구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연구 시기는 고대부터 근대 이전까지로 상정한다. 연구대상은 전 세계에 산재한 현존하는 동아시아의 회화를 수집·정리하는 동시에, 화제를 기록한 문헌자료를 정리한다. 다음으로, 수집된 자료 가운데 화제를 선별해 목록을 작성한다. 화제를 분류하고, 분류하는 과정 중 중복되는 주제는 다중으로 입력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는 각 화제에 대한 해제를 작성한다. 해제를 진행하면서 분류는 재확인되고 보완된다. 해제는 사전적 정의, 문헌적 전거, 화풍의 시대적 변화, 주요 작가와 작품 등을 통합적으로 서술한다. 이러한 해제과정은 본 과정에서 개발한 동아시아 화제 입력

3 이러한 논거는 본 연구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효은, 「16-19세기 韓·中 雪景畫에 내포된 王維 인식과 표현」, 『미술사논단』45(2017. 12) 논문 참조.

기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집성된다. 최종적으로 ‘동아시아 화제 아카이브’가 구축되어 공개된다. 현재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화제의 목록과 해제과정을 진행하면서 피드백 과정을 통해 목록을 수정·보완하는 단계에 있다.

연구대상은 동아시아의 화제가 표기된 회화작품과 문헌기록으로, 이를 통합적으로 수집·정리한다.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동아시아의 회화작품을 폭넓게 조사·수집하되, 현실적으로 모든 기관에 소재하는 회화작품들을 검증하고 고증·해제하기 어려우므로, 국내외의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 및 국공립기관, 사설기관, 화랑 및 개인소장의 현황을 파악하여 간행된 도록을 수집·정리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자료의 목록을 확보한다. 또한 동아시아의 화제가 제시된 문헌자료를 수집함에, 역사서와 화론서 및 문집들을 일차적으로 선별하여 조사한 후, 화제의 목록을 작성한다. 다음은 각국의 화제 관련 기초자료를 선별한 것이다.

한국의 회화작품은 각 박물관과 미술관 및 문화기관에서 간행, 발표된 도록과 화집, 학술논문 등의 자료를 조사하여 수집한다. 웹 사이트로는 각 기관에서 공개하는 소장품 목록 외에, 박물관 미술관의 소장품 관리시스템인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서비스되는 전국박물관 소장품 검색사이트 e뮤지엄을 활용한다.⁴ 소장기관, 지정문화재, 국적과 시대, 재질, 분류, 출토지, 표제어 등으로 검색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으나, 향후 미술 장르로의 접근 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⁵ 한국의 문헌자료는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문헌자료 가운데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高麗史節要』,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內閣日曆』을 비롯한 歷史書와 관찬사료 및 韓國文集叢刊을 망라한 文集을 1차적으로 선별하여,⁶ 기록을 통해 畫題를 중심으로 題贊, 畫贊, 題畫詩, 題詠詩, 題款, 畫記, 題記 이외에 繪事に 관련한 기록을 조사해 일차적인 연구대상의 자료를 수집, 정리한다. 吳世昌의 『權域書畫徵』, 金亨섭의 『韓國美術史資料集成』, 강관식의 『조선

4 전국박물관소장품검색 이뮤지엄 <http://www.emuseum.go.kr/main> (2017.8.20).

5 본 웹 사이트는 전국의 박물관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어 매우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술유형과 장르에의 구분이 보다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예로, 회화, 서예, 조각, 공예, 건축 등 미술유형별 항목이 없어, 회화 장르를 보려면, 국적과 시대로 범위를 좁히고, 종이 또는 섬유 등의 재질로 검색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이로써 검색되는 자료도 서예, 서적, 회화 등이 한꺼번에 제시되므로 재선별을 해야 할 번거로움이 있다. 한편 대만의 고궁박물관 書畫典藏資料檢索系統(<http://painting.npm.gov.tw/>)은 유형별, 주제별로 설계가 체계화되었으며, 각 작품의 내용이 충실하여 검색시스템으로 참고할 만하다.

6 이 밖에 實記·事蹟, 地方誌, 詩書畫墨跡, 書簡文, 地理誌, 金石文 등에도 많은 화제 관련이 있으나, 이러한 자료에서의 화제에 관한 수집과 정리는 본 연구과정의 후속연구로 진행할 계획이다.

후기 궁중화원 연구』등 회화 관련 기록을 정리한 자료를 활용한다.⁷ 또한 본 연구팀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해외 소재 15~16세기 조선회화의 발굴조사 및 종합 DB구축》을 수행하면서, 조선 전기 회화 관련 문헌기록을 수집, 정리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본 연구 기간에는 조선 후기를 포함하여 전 한국 회화에 관련한 문헌에서 화제의 기록을 정리한다.

중국의 경우, 엄청난 수의 회화작품을 모두 망라하긴 실제로 어려운 까닭에 다음의 기본 텍스트를 정한다. 『中國古代書畫圖目』은 중국 대륙의 소장품에 대한 기본 자료로, 중국 國家文物局의 고서화감정전문가로 조직된 학자에 의해 중국서화 수십만 건을 정리하여 편찬한 것이다.⁸ 대만의 자료는 臺北故宮博物院의 소장품 도록인 『古宮書畫圖錄』과 웹 시스템을 이용한다.⁹ 해외 소재의 중국회화는 일본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에서 집성한 『中國繪畫總合圖錄』을 기본으로 삼는다. 본 도록의 자료는 현재 같은 학교 내의 東洋文化研究所 東アジア美術研究室에서 웹상으로 공개하고 있다.¹⁰ 전 세계에 소장된 중국회화의 양은 십만 점이 넘겠지만, 본 연구과정에서는 이상의 과정을 통해 한 번 걸러진, 진작으로 판명되는 대략 50,000여 점을 대상으로 한다. 문헌기록을 통한 중국의 화제는 고대로부터 『歷代名畫記』, 『宣和畫譜』 등과 같이 각종 화론서와 더불어 회화 목록을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하는 전통이 지속되면서 회화사의 갈래 분류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이에 관련한 화론서를 참고하고, 四庫全書 集部에 수록된 『歷代題畫詩類』, 『石渠寶笈』, 『佩文齋書畫譜』 등의 서화저록에 수록된 서화자료들을 통해 화제를 집성한다.¹¹ 또한 중국의 畫目과 畫題를 집성한 『歷代著錄畫目』, 『歷代著錄畫目續編』등을 참고한다.¹²

일본의 회화는 문부과학성 산하로 일본의 문화예술정책을 총괄하는 文化廳에서의 회화자료와, 도쿄국립박물관을 비롯한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 및 문화기관

7 오세창, 『국역 근역서화징』전3권(시공사, 1998); 진홍섭, 『한국미술사자료집성』전9권(일지사, 1996-2002); 강관식, 『조선후기 궁중화원연구』상·하(돌베개, 2001).

8 中國古代書畫鑑定組編, 『中國古代書畫圖目』全24冊(北京: 文物出版社, 1986).

9 國立故宮博物院編輯委員會, 『古宮書畫圖錄』全30冊(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89).

10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編, 『中國繪畫總合圖錄』전9권(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2-2001); 中國繪畫所在情報データベース <http://cpdb.ioc.u-tokyo.ac.jp/index2.html>(2017. 8. 20).

11 陳邦彥等撰, 『歷代題畫詩類』(上海: 上海古籍, 1993); 國立故宮博物院編, 『石渠寶笈』(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71); 孫岳頌等奉勅纂輯, 『佩文齋書畫譜』(康熙 47, 1708년 序).

12 福開森(John Calvin Ferguson), 『歷代著錄畫目』(臺北: 臺灣中華書國, 1968); 『歷代著錄畫目續編』(1948년판) 참조.

의 자료를 수집한다.¹³ 츠쿠바(筑波) 대학에서 구축한 ‘일본미술 데이터베이스 회화편(Japanese Art Thesaurus Database: Paintings)’을 참고하고,¹⁴ 『日本美術全集』, 『日本美術繪畫全集』 등 대표적인 회화전집을 정리한다.¹⁵ 문헌 관련 자료는 『本朝畫史』, 『增訂古畫備考』, 『日本畫論大觀』, 『後素集』 등 역대의 繪事 관련 서적 외에, 근대에 이르러 화제를 집성한 齋藤隆三의 『畫題辭典』,¹⁶ 金井紫雲의 『東洋畫題總攬』 등을 참조한다.¹⁷ 최근 일본의 리쓰메이칸(立命館)대학 아트 리서치센터에서 Wiki를 통해 화제 목록을 정리, 공개한 것은 아주 주목할 만하다.¹⁸ 여기에는 『畫題辭典』, 『東洋畫題綜覽』, 『前賢故實』 등의 자료를 통해 4,626건의 화제를 정리했다. 그러나 일본의 화제는 동아시아의 화제와 별개로 사용되는 독자적인 화제가 상당하여 관련한 학자의 참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수집한 회화작품의 데이터는 일련번호(고유번호)/ 작품명/ 작가/ 국가/ 시대/ 형태/ 크기/ 재질/ 소장처/ 키워드/ 작품이미지/ 비고(화제의 유무/ 관련인물/ 참고자료 출처 등) 등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정리한다. 화제관련 문헌기록의 데이터는 일련번호(고유번호)/ 국가/ 화제(한자)/ 화제(한글)/ 작가/ 시대/ 문헌명/ 권호/ 제목/ 내용/ 키워드/ 비고 등의 항목으로 분류해 정리한다. 다음은 수집한 자료로부터 화제 목록을 만들고, 화제를 분류하는 동시에 해제하는 작업이다. 동아시아의 화제는 공통으로 사용된 것도 있고, 각 나라별 고유한 화제도 상당하다. 때문에 통합적인 집성과 논의과정을 통해, 공통의 화제 항목을 선별하며, 정리된 화제 목록은 다시 장르별로 분류해야 한다. 하나의 주제가 변주된 유사한 화제는 대표적인 화제 아래 항목으로 다시 분류한다.

화제 분류의 사례로, 중국 東晉시대 王羲之(307~365)의 『蘭亭序』를 회화로 표현한 그림인 〈蘭亭修禊圖〉의 항목을 살펴본다. 동아시아 화제를 수집, 정리 및 목록을 작성하면서 난정수계도와 유사한 많은 화제, 蘭亭圖, 蘭亭會圖, 蘭亭觴詠圖, 蘭亭修禊圖, 蘭亭契會圖, 蘭亭禊飲圖, 蘭亭曲水圖, 流觴曲水圖, 觴詠圖, 蘭亭流觴 등은 동일한 항목의 범주로 묶는다. 그리고 이 가운데, 왕희지가 서문에서 ‘修禊(음력 3월 3일 행하는 제사)’를 위해 蘭亭에 모였다고 한 기록을 근거로 난정수

13 e-Museum <http://www.emuseum.jp/help/ko> (2017.8.20).

14 Japanese Art Thesaurus Database: Paintings <https://www.tulips.tsukuba.ac.jp/jart/> (2017.8.20).

15 『日本美術全集』全20卷(東京:小學館); 『日本美術繪畫全集』全25卷(集英社, 1976~1980).

16 齋藤隆三, 『畫題辭典』(東京:博文館, 1925. 10).

17 金井紫雲 編, 『復刻版 東洋畫題綜覽』(東京:國書刊行會, 1997), 원서는 1941~1943기간에 집성됨.

18 WEB畫題百科事典「畫題Wiki」<http://www.arc.ritsumeai.ac.jp/opengadaiwiki/index.php> (2017.8.20).

계도를 상위 카테고리에 두고, 나머지 화제들은 하위 카테고리에 정렬한다. 실제로 난정수계도의 제목이 많이 제작되었으며, 나머지 용례들은 파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회화 전문가의 해제가 진행된다. 동아시아 화제 입력기를 사용하여 입력하며, 〈난정수계도〉의 경우는 인물, 고사인물, 누각 등으로 주제, 분류의 항목을 부여한다. 작가, 제목, 소재, 주제 등, 화제와 관련한 키워드를 다양하게 지정하여 차후 검색 기능을 고려한다. 해제 내용은 사전적 정의, 문헌적 典據, 화풍의 시대적 변화양상, 주요작가와 작품 등을 통합적으로 기술하며, 화제의 문헌기록, 회화작품 등을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기록과 작품은 해제과정에서 선별될 수 있다. 동아시아의 화제에서 난정수계도는 중국에서 다양한 유형과 화풍으로 제작되었고, 시대와 지역을 거치며 역시 다양하게 변모된다. 그 가운데 劉淑(1827~1873)의 〈修稷圖卷〉은²⁾ 조선 후기 황권의 형태로 제작한 난정수계도의 유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1853년 3월 3일 중국의 난정 모임이 있는 지 1500년이 되



2

劉淑

〈修稷圖卷〉

1853년

지본담채, 28.3×255.5cm

국립민속박물관

던 해를 기념하여 당시 서울 장안에 살던 30명의 중인들이 남산 기슭에서 수계시회를 개최하고 그 장면을 그림으로 남긴 것이다.¹⁹ 이렇듯 왕희지의 난정계사의 풍류를 따라 모임을 행함으로써, 문인 모임으로서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화면에는 복식, 풍경, 화풍 등 조선 후기의 실제적인 시각체험을 재현하고 있다.

Ⅲ. 화제 아카이브의 활용 및 기대효과

동아시아 화제의 집성은 직접적인 회화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체계적이고 종합 정리된 데이터베이스는 구축된 바가 없다. 따라서 화제에 관한 아카이브는 다음과 같은 동아시아 회화사 연구에의 활용가치와 기대효과가 있다.

첫째, 우리는 동아시아 화제 아카이브를 토대로, 수많은 작품들에 대해 정확한 화제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동아시아의 문헌기록에 제시된 화제와 실제 회화작품을 통합한 화제의 목록과 해제는 동아시아 회화작품의 주제적, 형식적 계보를 구축하게 된다. 현존하는 작품 가운데는 어느 나라의 것인지, 어느 시대의 것인지, 무엇을 그린 것인지 모르는 상당한 수량의 회화작품이 산재한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회화사의 실상을 파악하고, 수많은 전칭작 및 국적의 경계가 모호한 작품의 진위를 파악하여, 국적 및 시대를 판별하는 데 중요한 실증적·물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잘못 붙여진 그림의 제목을 고증하고, 화제가 표기되지 않은 작품군을 고찰하여 적합한 화제를 부여할 수 있는 기초토대자료를 제시할 것이다. 이로써 현재 동아시아 회화사 영역에서 감정 및 연구를 위한 자료적 토대가 전무한 현실을 타개한 동아시아 회화사 연구의 기초토대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현재 전하지 않는 회화를 복원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실제로 ‘한국 회화작품의 부재’라는 실상에서 시작되었다. 한국회화의 경우, 기원 전후부터 그림

19 당시 시회에 참석한 羅岐(1828~1894)는 다음과 같은 시문을 통해 모임의 목적을 설명한다. “남산 아래 남쪽 계곡 물가에서 재액을 떨어버리는 수계를 행하니 계절은 늦봄에 이르렀네. 아름다운 나무들은 잎새가 무성하고, 꽃은 향기롭네. 화락하고 맑으니 안연의 거문고요 증점의 비파소리라. 저 난정의 일을 추억하니, 시대는 다르지만 풍류는 같아라. 열 지어 앉아 술 마시고 시 읊으며 애오라지 근심을 녹이네. 南山之下 南澗之濱 載稜載褱 時屆暮春 嘉木扶疎 名花芬苾 和樂且湛 顏琴點瑟 溯彼蘭亭 異世同流 列坐觴詠 聊以消憂”하였다.

이 그려지긴 했지만, 고려시대부터 중세적 감상용 그림이 태동하면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미술 분야에서 시대의 이념과 흐름을 주도하면서 중심을 이룬 것은 ‘繪畫’로, 회화의 다양한 장르별 주제와 양식이 수립되었으며, 한국적 화풍이 형성·전개되었다. 문인문화가 성행하면서 시서화를 겸비하고 고동서화를 수집, 완상, 감상, 품평하는 풍조가 확산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회화는 양적 팽창과 질적 성장을 이루면서 상당량의 작품과 題畫詩, 題畫詞, 序跋 등의 관련 기록을 양산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수많은 회화가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하는 작품은 현저하게 적다. 한국의 회화는 많은 수가 산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존하는 작품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화제가 유실 또는 위작으로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 회화작품의 태작이 많아 작품의 진위 파악이 어렵고, 회화 관련 도록이나 화집 발간 시 그림의 제작적 인상과 불충분한 학술적 근거에 의거한 임의적이고 편의적인 제목이 많아 실제 작품의 내용과 화제가 상당수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회화작품의 내용 혹은 제작 형식을 파악할 수 있는 화제의 집성은 누락된 한국 회화사의 실상을 보완하여 새로이 규명하고, 산실된 회화를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명함으로써 전반적인 한국 회화사의 복원에 큰 기대를 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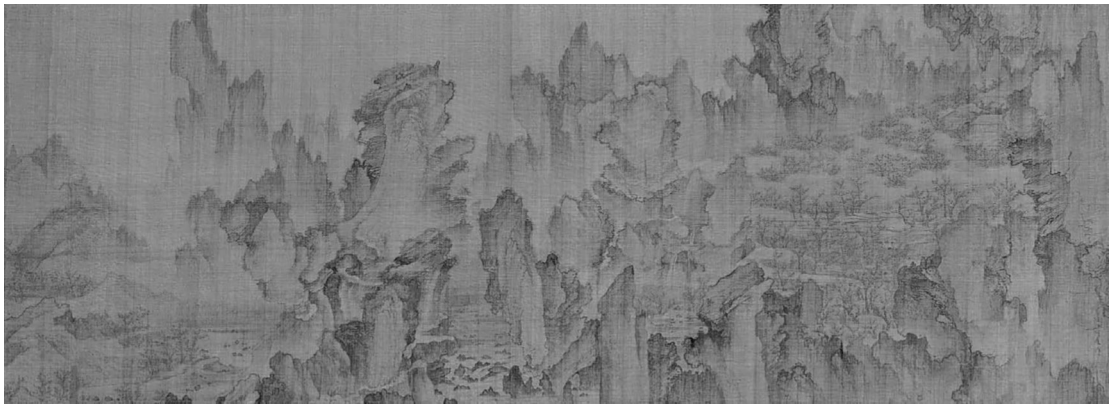
셋째, 동아시아의 특성이 반영된 회화의 분류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동아시아의 화제 분류는 관행적이고 편의적인 갈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때로 근대 이후의 서구식 분류법을 따르고 있다. 이에 동아시아의 고유한 분류체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北宋代에 편찬된 『宣和畫譜』만 보더라도 당시의 회화를 수집하면서 畫目的 기준을 세워 회화를 분류하고 있다.²⁰ 현재, 이러한 과거의 분류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지만, 우리는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한 현재의 분류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과거로부터의 분류체계와 대표적인 화론서를 분석하고, 현재 각국의 회화 분류 현황을 종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동아시아 화제 분류 문제의 단초를 연 것으로, 향후 동아시아 회화의 분류에 관한 연구들을 파생할 것으로 본다. 이로써 기존의 관행적인 분류방법론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동아시아 회화의 고유한 특성을 정확하게 살린 체계적인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20 『宣和畫譜』는 北宋 徽宗(재위 1100~1125) 대에 황실 內府에서 소장하고 있던 그림과 史料들을 분석하여 편찬한 회화사론으로, 道釋, 人物, 宮室, 番族, 龍魚, 山水, 畜獸, 花鳥, 墨竹, 蔬果 등 10가지 繪畫科目으로 분류, 정리하고 있다.

이상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본 연구의 진행 중 수집한 《중국고사도 8첩 병풍》은 金弘道(1745~1806)가 그린 그림으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병풍에는 《雲臺晝眠》이라는 화제를 가진 그림이 있는데,²¹ 이에 대해서는 송대 주자(雲谷老人 朱熹, 1130~1200)가 운대산에서 유유자적한 고사, 혹은 사천성 운대산과 관련된 고사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소개되어 왔다. 그러나 문헌적 원형을 추적하고 도상을 분석한 결과, 본 그림은 화산 운대에서 잠으로 은거한 陳搏(872~989)의 고사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운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隱者의 이미지, 운대의 폭포 이미지, 운대의 소나무 이미지 등은 모두 진단과 관련이 있는 소재들이었다.²²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문헌기록으로 ‘雲臺晝眠’이라는 화제가 있는 경우 그 작품을 복원하기 위한 상상도를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덴리(天理) 대학에 소장된 《夢遊桃源圖》^{도3}은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당시의 유명한 화가 安堅이 그린 것이다. 1447년, 안평대군이 문인들과 도화꽃이 가득한 이상향을 거닐었던 꿈을 그린 것으로, 처음에는 제명이 ‘몽도원도’였다가 16세기 무렵 개장되면서 ‘몽유도원도로 제침이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고려 후기의 전통을 잇고, 중국 송원대 이과파의 영향을 받아 한국적으로 정착시켰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15세기 조선 전기 화단을 이끌었다고 평가를 받는 대가 안건의 진작은 바로 이 한 작품뿐이다. 그러나 문헌기록

3
安堅
《夢遊桃源圖》
1447년
견본채색, 38.6×106.2cm
덴리대학 도서관



21 金弘道の《雲臺晝眠圖》는 본 책의 p.231, 도4 참고.

22 이러한 논거는 본 연구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옥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金弘道 《雲臺晝眠圖》의 재검토」, 『미술사논단』45(2017. 12) 논문 참조.

傳 安堅

《四時八景圖》

견본담채, 각 25×25cm

국립중앙박물관



에는 당시 문인과 화가들에 의해 전개된 다양한 화풍과 양식 및 화제에 대한 기록이 다양하여 당시 회화 창작의 실상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이에 안견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수많은 전칭작은 동시대 문헌자료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예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중인 안견의 전칭작 《四時八景圖》^{도4}는 당시 유행한 瀟湘八景圖, 四時圖, 四時八景圖, 四季八景圖 등의 화풍과 비교, 면밀히 고증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소재 한국 회화의 목록은 현재 완비되지 못한 실정이며, 국외로 반출되었거나 국적불명으로 유존하는 작품 역시 상당한 수량을 차지한다. 따라서 조선을 포함한 전 한국 회화의 소장현황을 집성하여 작품을 목록화하고, 화제가 표기되지 않았거나 전칭작으로 분류되는 작품 및 국적 불명의 작품에 대한 신원과 성격 등을 규명하는 기초적이고도 종합적인 학술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18세기 조선 후기의 문인 李匡師(1705~1777)와 당시의 유명한 화가 鄭澈(1676~1759)이 서예와 회화로 합벽을 이룬 〈武夷九曲圖〉는 중국 南宋의 성리학자 朱熹가 지은 「武夷九曲權歌」를 그림으로 묘사한 작품이다.²³ 중국 푸젠성(福建省) 武夷山의 아홉 경치를 그린 것이지만, 조선에서도 이 화제는 주자성리학이 발전하면서 많이 그려졌고, 조선의 화풍으로 그려진다. 본 화첩에도 주자의 강학처인

23 石附啓子, 「鄭澈筆七先生詩畫帖」, 『國華』1423(朝日新聞出版, 2014), pp.39-43.

무이산 구곡계와 함께, 조선 성리학자 李滉(1501~1570)의 강학처인 <陶山退溪>를 그리고 있다.⁵ 또한 조선에서는 이황, 李珣(1536~1584)와 같은 조선 성리학자의 은거지나 書院을 소재로 한 <高山九曲圖>, <陶山圖> 등이 별서유거도 계열의 실경산수화로 그려진다. 동아시아 회화에서 이러한 문학과 사상, 그리고 회화를 결합한 詩意圖가 상당한 수량 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 문인과 화가 사이에 공유된 화제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헌자료와 현존 작품에 관한 자료를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당시 문예의 흐름과 회화가 그려지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5
李匡師書, 鄭敬畫
<陶山退溪>
<武夷九曲圖>
건본채색
書 23×15cm
圖 23.2×14.8cm
帖 38.7×30.4cm
개인소장

IV. 동아시아 화제 아카이브, 과제와 전망

현재 우리는 어디서든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 원하는 자료를 쉽게 얻는다. 자료의 공유는 현재 지역적 한계를 넘어 빅데이터, 아카이브 등을 바탕으로 더 확장되며, 디지털 정보와 검색시스템을 갖춘 문화 콘텐츠 역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내외의 미술문화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다.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최신 ICT(정보통신기술)와 지식정보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기반이 되어, 기술과 인문예술이 콜라보를 이룬 미술문화의 콘텐츠와 플랫폼이 계속 창출되는 것이다.

미술 분야의 대중적인 문화 콘텐츠로, 현재 구글에서 제공하는 '아트 앤 컬처'는 대표적이다.²⁴ 전 세계 각국의 문화기관들이 구글과 협업해 가상현실, 360° 영상, 스트리트 뷰, 초고해상도 '기가픽셀' 이미지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누구나 쉽

²⁴ Google Art & Culture <https://www.google.com/culturalinstitute/beta/> (2017.8.20).

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를 하고 있다.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과 많은 박물관들에서도 구글과 협업하여 고품질의 작품을 업로드해 놓았다. 그럼에도 구글에서 제공하는 전시 중 아시아 미술 관련 부분은 여전히 많이 제한적이다. 향후 더 많은 아시아의 문화기관이 협업하여 개선시켜 가겠지만, 아직은 학술 소프트웨어 방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한국미술의 경우, 일단 화제, 그림 제목으로는 검색이 잘 안 되며, 작가명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 가운데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 중 한 사람인 '김홍도'를 검색해 본다면, 위키백과와 연결되어 김홍도의 생몰년과 생애가 간략히 소개되며, 다양한 유형의 작품 489여 점이 함께 제시된다. 최근에 진위 논란이 있는 풍속화첩에 수록된 화첩의 한 폭이지만, 대표작으로 많이 알려진 씨름 장면을 보면, 서지정보, 재질, 소장처 등이 제시된다. 이러한 웹 사이트와 콘텐츠를 쓰는 작가별, 소장처별, 재질별 등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세계 미술로의 접근이 가능하여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학문적인 입장에서 접근해 본다면, 그다지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는 못한다.

동아시아 미술의 연구자와 최근의 대중은 보다 양질의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정보를 원한다. 작품뿐 아니라 그것이 제작된 환경을 알려주는 정보, 작가와 감평가에 의한 문헌자료, 문학, 사상 등을 더 쉽게 이해하고자 한다. 물론 관련한 논문을 찾아볼 수 있으나, 현재 정보의 공유가 가능한 세상에서 대중적 접근이 가능하면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 콘텐츠가 기획된다면 어떨겠는가? 문화강국의 새로운 비전은 창의적인 콘텐츠의 창출과 활용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창의적 콘텐츠는 기초학문의 자료가 정확한 학술적 기반 토대에서 성장했을 때만 그 진가와 성공을 기대할 수 있고, 이러한 순차적 자료의 지식고가 쌓일 때, 질 높은 정보가 유익하고 창의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미술 문화 가운데, 회화에 관한 문헌자료와 회화작품을 시각적 아카이브와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는 동시에, 검증된 연구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미술 콘텐츠의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학술 부분을 보완해줄 것이다. 이로써 동아시아 회화사 방면의 기반연구를 갖추어, 향후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콘텐츠로 적극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실상 동아시아의 문헌자료와 기록에서 확인되는 화제는 매우 방대하다. 그에 비하여 현존 작품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화제가 없는 작품도 많다. 또한 현재 알려진 화제도 본래 작가나 동시대인이 제목으로 또는 제발로 제시한 경우는 많지 않고, 오히려 근대 이후 후대의 소장가나 평론가가 그림의 소재, 주제, 내

용 등에 의거해 임의대로 화제를 정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과거에 회화가 창작되고 감상되던 실상을 파악하고, 당시 화제의 용어와 개념을 살피고, 당시 그려진 회화작품을 확인함으로써 정확한 화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작업은 기술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로써, 미술사학자를 비롯한 관련 연구자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다. 단순히 자료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의 수집과 정리, 선별, 분류, 그리고 해제의 모든 과정에서 면밀하고 섬세한 전문가적 판단이 중요하다.

본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원은 동아시아 미술사학자, 역사학자, 중국고전문학자, 한문학자로 구성된 각 분야의 전문가이다. 각 분야의 연구 전공자들은 공동의 논의를 통해 예술학, 문학, 역사학, 한문학, 철학, 사회학 등 분과 학문의 범위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동아시아 회화사를 총체적으로 조망하고 연구관점을 확대하게 될 것이다. 다만 한국미술 전공자가 많은 관계로, 어쩔 수 없이 한국미술의 관점에서 논의된 것이 많으며, 목록은 한글과 한자가 병기되지만, 해제는 한글로 작성되다 보니 해외에서 접근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본 프로젝트는 중국과 일본에 정통한 연구자와 미술사학자의 참여가 더 요구되며, 동아시아의 통찰적 시각과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공통의 화제를 선별하고 해제를 보완하는 과정이 절실하다. 이에 향후 동아시아에서, 또 유럽과 구미에서 활동하는 동아시아 미술연구자가 지속적인 공동의 논의를 이루고, 동아시아 미술사의 연구 성과가 통합되길 희망한다. 이로써 동아시아 화제를 토대로 한 풍부하고 정교한 동아시아의 회화 아카이브가 구축되는 동시에, 새로운 연구가 계속 파생되고 심화되길 기대한다.

V. 맺음말

동아시아의 문화예술은 통합적인 인문정신의 결합체로서 발로되어, 각 시대를 지배하는 이념과 사상을 대변하고 역사와 문화의 새로운 장을 펼쳤다. 화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회화사를 재편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인문학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근대 이후 서구적인 분과 학문과 미학 분류표에 길들여져 있던 학계의 풍토를 넘어서고자 한다. 문학과 예술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표현된 동아시아의 화제를 다양한 학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기술문화와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융복합의 콘텐츠를 창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실증적 회화언어라 할 수 있는 화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예술분야의 기초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동아시아 회화 분야의 문헌기록과 회화작품을 수집, 정리, 분석하며, 화제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해제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집성하고 있다. 이렇게 학술적으로 검증된 데이터베이스는 향후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콘텐츠를 적극 활용될 것이다. 또한 소인문적인 정신이 응축된 동아시아 미술작품을 매개로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와 이해를 새롭게 해석하고 널리 보급하는 견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주제어 keywords

畫題 *Hwaje*(subject of Painting), 동아시아 회화 East Asian Painting, 동아시아 화제 아카이브 Archive of East Asian *Hwaje*, 분류 Classification, 해제 Interpret

투고일 2017년 8월 30일 | 심사일 2017년 9월 10일 | 게재확정일 2017년 12월 5일

- 강관식 Kang, Kwan-sik, 『조선후기 궁중화원연구 Joseon Hugi Kungjung Hwawon Yeongu』, 서울: 돌베개 Seoul: Tolbegae, 2001.
- 吳世昌 編 ed. O, Se-ch'ang, 『(국역)근역서화징 (Kugyok)Kunyok Sohwaching』, 서울: 시공사 Seoul: Sigongsa, 1998.
- 秦弘燮 Chin, Hong-sop, 『韓國美術史資料集成 Hanguk Misulsa Charyo Chipsong』, 서울: 일지사 Seoul: Ilchisa, 1996-2002.
- 『日本美術全集 Nihon Bijutsu Zenshū』, 東京: 小學館 Tōkyō: Shōgakkan, 2016.
- 『日本美術繪畫全集 Nihon Bijutsu Kaiga Zenshū』, 東京: 集英社 Tōkyō: Shūeisha, 1976-1980.
- 齋藤隆三 Ryuzo Saito, 『畫題辭典 Gadai Jiten』, 東京: 博文館 Tōkyō: Hakubunkan, 1925.
- 金井紫雲 Shiun Kanai, 『東洋畫題綜覽 Tōyō Gadai Sōran』, 東京: 國書刊行會 Tōkyō: Kokusho Kankōkai, 1997. Originally published: Kyōto-shi: Unsōdō, 1941-1943.
-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編 ed. Tokyo University Eastern Culture Center, 『中國繪畫總合圖錄 Chūgoku Kaiga Sōgō Zuroku (Comprehensive Illustrated Catalog of Chinese Paintings)』,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Tōkyō: Tōkyōdaigakushuppankai, 1982-2001.
- 國立故宮博物院編輯委員會 編 ed. Guoli Gugong bowuyuan Bianjiweiyuanhui, 『故宮書畫圖錄 Gugong Shuhua Tulu』,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Taipei: Guoli Gugong bowuyuan, 1989.
- 福開森 John C. Ferguson, 『歷代著錄畫目 Lidai Zhulu Huamu』, 臺北: 臺灣中華書國 Taipei: Taiwan Zhonghuashuju, 1968. Originally published by: Nanjing: Jinling daxue Zhongguo wenhua yanjiusuo, 1934.
- 中國古代書畫鑑定組 編 ed. Zhongguo Gudai Shuhua Jiandingzu, 『中國古代書畫圖目 Zhongguo Gudai Shuhua Tumu (Catalogue of authenticated works of ancient Chinese painting and calligraphy)』, 北京: 文物出版社 Beijing: Wenwu chubanshe, 1986.

Construction and Usage of East Asian *Hwaje* Archive

Seo, Yunkyung

The “Comprehensive Research and Digitization Project on *Hwaje*(畫題) of East Asian Painting” project aims to comprehensively collect, organize, classify, compile and interpret *hwaje* of literary records and paintings of East Asia, as well as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database.

Hwaje(Kr.) is known as *huati* in China and *gadai* in Japan, and it refers to a title, topic, theme, or subject matter of a painting. The term first appeared as titles in paintings, but later on came to encompass critiques, themes, and many other aspects of paintings. Later, *hwaje* was repeated, became stereotypes, and represented topics that visualized particular iconographies. As a result, in East Asian paintings, *hwaje* gradually became the most fundamental painting language resonating with the objectives and intentions of an artist.

In this research project, East Asian *hwaje* will be comprehensively compiled as an elected database. It will constitute a method of classifying *hwaje* of paintings, which can emphasize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East Asian paintings. Interprets of *hwaje* will describe the definitions, the literary sources, and the periodical changes in painting styles. The final goal will eventually produce a “Comprehensive Archive of East Asian *Hwaje*” in the near future.

The expected usage of the *Hwaje* Archive are as follows: The *Hwaje* Archive is to give numerous paintings a precise *hwaje*. It enables us to fix incorrect titles and assign proper titles to paintings with no *hwaje*. Secondly, the *Hwaje* Archive not only helps to improve the possibility to extrapolate *hwaje* from nonextant paintings, but also to offer criteria to evaluate a considerable amount of paintings, of which the country of origin, date, or subject matter is unknown. Thirdly, the *Hwaje* Archive proposes a painting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the unique features of East Asian paintings.

The present-day, technology, humanities, and art are increasingly converging, while new art contents and platforms are continuously being developed. In this environment, an academically qualified *Hwaje* Archive is expected to be actively utilized in diverse ways in the field of art and culture now and in the future.